



SBS 아시안게임 중계 뜨거운 호응



개막식, 주요 경기 시청률 1위

앞서가는 중계 노하우, 최고의 해설진과 캐스터로 구성된 SBS의 '2014 인천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19일(금) 방송된 개막식 중계에서 배기완 캐스터와 주영민 기자가 안정적이고 관록 있는 해설로 호평을 받으며 시청률 조사기관인 TNmS기준 전국시청률 9.2%(서울수도권 11.2%)로, 각각 8.6%와 7.0%에 그친 MBC와 KBS2를 제치고 개막식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9월 20일(토) 방송된 펜싱 여자 사브르 결승전은 SBS 중계방송이 시청률 10.1%(닐스코리아, 서울수도권 기준)를 기록하며 이날 아시안게임 중계방송 중 시청률 최고자리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20일 아시안게임 방송 중 SBS는 시청률 1위를 포함, 펜싱과 사격 등 무려 6개에 이르는 중계가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9월 21일(일) 중계한 인천아시안게임 경기 중 유도 여자 57kg급의 김잔디가 은메달을 확정짓는 순간, SBS 방송이 닐스코리아 전국기준 시청률로 13.2%(순수 경기 시청률 산출)를 기록하며 전체 1위에 올랐고, 유도 여자 63kg급 결선 중계는 11.4%로 2위를 차지했으며, 남자수영 200m에 출전한 박태환의 결선경기는 11.3%로 3위에 오르는 등 21일 현재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중계 방송된 상위 30위에서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9월 24일(수) '대한민국 VS 대만' 야구중계는 코리안투프 박찬호 해설위원이 해설을 맡아 큰 화제가 되었는데, 자신만의 경험을 살린 멘트와 직설적인 화법으로 시청자들과 야구팬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시청률 5.8%(TNmS수도권)를 기록, 5.6%를 기록한 KBS2를 앞질렀다. 또한 배성재 캐스터와 박문성 위원 등 SBS 해설진은 매 경기마다 재치 있는 개념 발언으로 재미와 전문성을 겸비한 수준 높은 해설을 선사하며 각광을 받았다.



SBS, 인천아시안게임 지상파 UHD 생중계로 '차세대 감동' 전해

SBS의 인천아시안게임 생중계가 뜨거운 감동의 순간들을 전달하는 동안, 인천 남동쪽 송도글로벌캠퍼스의 비치발리볼 경기장 뒤편에 작게 마련된 'SBS UHD TV 방송센터'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차세대 감동'을 안겨줄 차세대 고화질 지상파 방송 생중계 실험이 실시되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9월 20일(토)~29일(월)까지 열흘간 실시된 이번 SBS의 비치발리볼 UHD TV 생중계에는 네 대의 4K 카메라와 네 대의 4K 서버, 한 대의 4K 스위치 등이 동원되었고, 두 대의 초고효율 영상압축(HEVC) 인코더를 번갈아 사용하며 영상을 압축한 후 관악산과 용문산을 통해 수도권 UHD TV 직접수신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험 방송되었다.

특히 이번 생중계 제작에는 개막식, 배구경기 등을 4K로 제작하여 공동으로 중계하는 KBS와 MBC가 성능이 검증된 4K 전용 카메라들을 사용한 것과 달리, SBS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지만 줌 사용이 자유로운 기존 HD 렌즈들을 활용할 수 있는 4K 카메라를 사용하여 선수들의 유니폼 등 디테일을 잘 살렸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차세대 방송인 4K 콘텐츠는 현재의 DTV보다 해상도가 네 배나 되는 만큼 초기인 지금으로선 네 배의 라인들과 네 배의 성능을 가진 장비들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용방법이 생소하면서도 복잡하여 네 배 이상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 비록 크고 화려한 IBC가 아니라 풀과 자갈만 있는 간척지 별관에 세워진 컨테이너 속이지만 UHD 제작팀 멤버들은 언젠가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날을 기대하며 불편함도 잊고 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명품배우들의 열연으로 화제

2014년 하반기 최고의 작품으로 기대되고 있는 SBS 월화드라마 <비밀의 문>(부제 '의궤살인사건' 극본 윤선주 연출 김형식 이하 비밀의 문)이 9월 22일(월)부터 방송되고 있다. <비밀의 문>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 영조와 뒤주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진 비운의 왕자 사도세자의 참혹한 가족사에 궁중 미스터리를 더해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첫 회부터 몰입을 높였다. 또한 영조 역의 한석규, 세자 이선 역의 이제훈을 비롯하여 김민중, 최원영, 김창완, 이원중, 김유정, 박은빈 등 탁월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배우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열연으로 매 장면마다 눈을 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긴장감 넘치는 극 전개와 조선시대를 옮겨놓은 듯한 생생한 연출력,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로 첫 방송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비밀의 문>은 2회에서 전국 시청률 9.7%(닐슨코리아, 전국), 수도권 시청률 11%를 기록, 단숨에 시청률 1위에 오르며 월화 안방극장 신홍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시청자들은 심도 있는 스토리와 차원이 다른 연기로 무장한 <비밀의 문>에 큰 기대를 나타내며 '2011년 방송된 SBS <뿌리 깊은 나무> 이후로 등장한 명품사극'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방송 전 18일(목) 목동 SBS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김형식 감독은 “<비밀의 문>은 ‘아버지가 왜 아들을 죽였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사도세자의 삶과 죽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야

기와 미스터리, 멜로에 이르는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캐스팅 과정에서 염두에 두었던 배우들을 모두 캐스팅 할 수 있어서 무척 영광이다. 드라마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연기를 감상하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획의도와 연출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강력한 왕권을 지향하는 영조와 신분의 귀천이 없는 공평한 세상을 주창하는 세자 이선간의 갈등을 재해석한 드라마로 회를 거듭할수록 화제를 모으고 있는 <비밀의 문>은 매주 월·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고 있다.



주말미니시리즈 <모던 파머>

티저포스터 공개, 첫 촬영

<기분좋은 날> 후속으로 방송될 새 주말미니시리즈 <모던파머>(극본 김기호, 연출 오진석)가 티저포스터를 공개하고 홍대에서 첫 촬영에 들어갔다. 본격 '청춘유기농드'를 표방한 주말미니시리즈 <모던 파머>는 농촌으로 귀농하게 된 네 명의 록밴드 멤버들의 유기농처럼 맑고 청정한 꿈과 사랑, 우정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나가는 휴먼 코미디드라마로, 10월 18일(토) 매주 토·일요일 밤 8시 45분에 방송된다.



한류를 주도하는 SBS드라마 : <별에서 온 그대>

미국 ABC방송에서 리메이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방송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미국 지상파 방송 ABC와 리



메이크 계약을 맺었다. 한국드라마가 동양권을 넘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쾌거를 이룬 <별에서 온 그대>의 리메이크 소식은 한류를 이끌어가는 SBS드라마의 위상을 확인시켜주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아시안게임과 함께 다시 뜨겁게!

〈런닝맨〉, SBS 아시안게임 해설위원 깜짝 등장

9월 28일(일) 방송된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에 SBS 아시안게임 해설위원들이 깜짝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된 〈런닝맨〉은 ‘오디션 배틀’이라는 부제로, SBS 수목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의 출연 배우들과 런닝맨 멤버들이 대결을 펼쳤다. 2라운드에서 등장한 핸드볼 임오경 해설위원과 배드민턴 김동문 해설위원, 농구 우지원 해설위원은 출연자들과 함께 아시안게임 종목을 소재로 콜라보레이션 미션을 수행하여 재미를 주었다.



〈웃찾사〉 개그맨들의 아시안게임 종목 소개 픽토그램 화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 개그맨들은 2014 아시안게임 종목 픽토그램을 재치 있게 표현하여 화제가 되었다. SBS는 개그맨들이 아시안게임 픽토그램을 온몸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과정을 소셜 콘텐츠로 제작, SNS 상에 배포함으로써 시청자와 네티즌에게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해 ‘SBS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SBS라디오 2014년 가을 개편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SBS라디오가 10월 6일(월)부터 가을개편을 시행한다.

러브FM은 거점 시간대 프로그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낮 12시 〈노사연, 이성미쇼〉와 저녁 6시 〈박영진, 박지선의 명랑특급〉을 주 7일 방송으로 확대하고, 토·일요일 낮 12시 10분에 방송되던 〈이세준, 최재훈의 도시락쇼〉를 밤 8시 30분으로 이동 편성한다.

파워FM은 월~일요일 밤 12시에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장예원 사우가 진행을 맡는 〈장예원의 오늘 같은 밤〉을 신설, 심야 음악프로그램으로 청취자



와 1대 1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최화정의 파워타임〉, 〈두시탈출 컬투쇼〉, 〈김창렬의 올드스쿨〉 등 킬러콘텐츠의 역량을 집중시켜 재미와 감동이 공존하는 오후시간대를 수성하고, 〈호란의 파워FM〉으로 출근시간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음악 관련 기획물 확대를 음악FM이라는 스테이션 제고에 힘쓰고자 한다.

러브FM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특집 ‘세대 공감 청춘콘서트’

유영미 아나운서 진행 20주년을 맞아 청취자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

SBS라디오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청취자와 만나고 있는 러브FM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 지난 9월 19일(금) 목동 SBS방송센터 1층 락스튜디오에서 청취자와 함께하는 특집 ‘세대 공감 청춘콘서트’를 개최하였다. 그간 한결같이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사랑해 준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초대가수 남진과 이광조의 음악을 라이브로 전했고, DJ인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유영미 차장이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 남긴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유영미 아나운서의 진행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1994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시니어들을 보듬어준 유영미 아나운서의 탁월한 진행은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 ‘시니어를 위한 전문 라디오 방송’으로 장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추억의 음악,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장으로 호응을 얻은 ‘세대 공감 청춘콘서트’는 10월 2일(목) ‘노인의 날’을 맞아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에서 방송된다.



유영미 아나운서 인터뷰

1 19일(금) 개최된 ‘세대 공감 청춘콘서트’가 청취자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세월이 빨리 가던데요. 눈을 두 번 깜빡하니 20년이 됐네요.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청취자들은 ‘한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세요. 10년 이상 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20년 지기도 변함이 없으세요. 진행자로서 당연히 고맙고 기쁘죠. 또한 수많은 개편과 프로그램 정비 속에서도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지속시켜준 SBS 라디오센터의 해안과 지원에 감사할 뿐입니다.

2 20년간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진행하시면서, 제작 환경부터 개인적인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뜻 깊은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년 전에는 건강한 방송을 모토로 그냥 효도하는 어르신 프로그램이구나 생각했죠.

7년쯤 진행하다 보니 단순한 진행자에서 벗어나 시니어를 좀 더 연구하고 싶다는 관심과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전공으로 대학원 논문도 쓰게 되고, 시니어관련 책 ‘두번째 청춘’도 발간하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2010년부터 1인 DJ 시스템의 일환으로 진행과 제작을 동시에 맡아서 하게 된 거죠.

이번 ‘세대 공감 청춘콘서트’는 SBS 라디오 개국 이래 평균연령 72세의 어르신들이 ‘락 스튜디오’를 꽉 채운 대단한 일이었죠. 베이비붐 세대가 어느덧 시니어 세대에 합류하면서 시니어 문화도 더욱 다양해지고 품격 있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다음 세대인 포스트 붐 세대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34%를 시니어군단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세대 공감 청춘 콘서트’는 그런 의미에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 위주의 방송문화에서 시니어들이 함께 즐기고 웃고 공감하는 시간과 장소를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행복했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3 앞으로도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과 함께 하실 청취자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년은 몸이 반란을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마음처럼 몸이 때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꿈을 찾아보세요. 젊은 시절 사는데 바빠 미뤄두었던 작은 꿈들을 이제 꺼내서 다시 현실로 만드세요. 103.5 LOVE FM 새벽 5시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 함께하겠습니다. 시니어들의 건강과 행복 정보를 가득 담아 배달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시니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청춘열차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내 소식

〈그것이 알고 싶다〉 최민철, 배정훈 PD, 제 7회 노근리평화상 수상

〈그것이 알고 싶다〉팀의 최민철, 배정훈 PD가 제 7회 노근리 평화상 인권부문을 수상했다. 노근리 평화상은 노근리 사건이 지



니고 있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 평화를 확산시키고자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이 2008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상으로, 매년 인권, 언론, 문학 등 3개 부문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최민철 PD는 '새엄마를 풀어주세요, 소녀의 이상한 탄원서' 편에서 아동학대를 심도 있게 지적하였고 후속편을 통해 아동학대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배정훈 PD는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 편에서 27년 전 발생한 형제복지원 비리를 심층 취재하여 이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아가와 꼬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 편에서 잘못된 제도에 의해 탈북주민이 간첩으로 몰리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여 탈북주민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하였다.

시상식은 지난 9월 18일(목) 충북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 내 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그것이 알고 싶다〉 '누가 썼는가? 애국가 작사 미스터리'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그것이 알고 싶다〉 '누가 썼는가? 애국가 작사자 미스터리'(연출 박진홍, 글 구성 장운정)가 방통심의위 2014년 7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애국가 작사자 미상 논란을 다각도로 추적하여 작사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촉구하고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애국가의 역사적 의미를 심도 있게 전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9월 25일(목) 방송회관에서 열렸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듀서 정철원 차장대우가 참석했다.



그룹 소식

2014 광주 ACE Fair, SBS미디어넷 부스에 관심 집중 - 쿵푸 팬더와 함께하는 격파왕, 스폰지밥 만들기에 어린이 관객 몰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14 광주 ACE Fair'가 40개국 424개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9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진행된 광주 ACE Fair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주관했으며 SBS미디어넷은 nickelodeon의 인기 캐릭터인 쿵푸 팬더와 함께하는 격파왕 이벤트, 스폰지밥 만들기 체험을 진행해 어린이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더 쇼 시즌4〉 제작발표회 개최

9월 23일(화)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더 쇼 시즌4〉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더쇼 MC 지연, 티아라, B.A.P, 방탄소년단이 참석해 새로운 시즌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 쇼 시즌4〉는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과 중국에서 공동 제작하고 동시에 생방송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거듭난다. SBS 플러스와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투도우가 만나 아시아 시장에서의 K-POP 트렌드를 함께 주도해 나간다.

SBS 미디어넷 김계홍 본부장은 "열정과 절실함으로 뭉쳐 한, 중 공동제작, 공동 생방송 프로그램인 〈더 쇼 시즌4〉를 론칭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우수한 음악과 라이프스타일을 아시아와 전 세계에 알리고 팬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더 쇼 시즌4〉는 오는 10월 28일(화) SBS MTV, SBS funE, SBS MTV, 투도우를 통해 첫 방송된다.

부서 탐방 | 미디어크리에이트 미디어사업본부

장예원 아나운서가 축구공을 리프팅하여 골대에 넣는 SBS 아시안게임 스폿이 화제가 되었다. 이 스폿은 미디어크리에이트 미디어사업본부에서 제작했다고 한다. '미디어크리에이트에서 직접 제작을?'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제작후기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이디어가 좋다. 어떻게 구상한 것인가?

이번 스폿은 SBS 편성팀과 미디어크리에이트가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골프 선수가 골프공을 자유자재로 튕기는 것을 보고 '미녀 아나운서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었다. "놀라움에 놀라지 마라"라는 슬로건의 "놀라움"은 아시안게임의 즐거움, 국가대표들의 활약, SBS의 뜨거운 중계 등을 내포하고 있고, 그 놀라움을 가장 쉽게, 한 방에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 아나운서의 리프팅 아이디어가 선택되었다. '전과 좀 다르다, 참신하다'고 봐주신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장 아나운서가 리프팅을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것은 아주자이도 울고 갈 기술이다. CG의 힘을 빌린 것인가?

실사 촬영과 CG의 합작품이다. 공이 없는 상태에서 리프팅을 하는 모션이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연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장 아나운서가 잘해주어 수월하게 촬영하였다. 나는 동작을 위해 공을 차는 장면은 실제 공을 사용하여 촬영 후 실제 공은 한 프레임씩 지우고 3D 축구공을 합성하였다. 후반 작업 시간이 부족해 추석 연휴 내내 밤샘으로 이루어졌는데, 스폿을 보신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차냐고 놀라실 때에 가장 뿌듯했다.

미디어크리에이트에서 이런 스폿도 제작하나?

미디어크리에이트 미디어사업본부에서는 광고 판매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사업들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있으며, 광고 제작이 가능한 제작파트가 따로 있다. 제작파트의 주 업무는 광고를 기획, 제작하는 일로 TV CF, 가

상광고와 맞춤형광고, 캠페인, 브랜드 프로그램 등 모든 광고물들을 제작하며 색다름을 원하는 광고주들을 위해 새로운 광고 포맷을 개발하고 선제안하기도 한다. 금번 스폿은 SBS 편성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케이스로, 선례로는 브라질 월드컵 티저 스폿이 있다. 또, 2014 SBS 공익 캠페인도 미디어크리에이트가 기획, 제작하였다. 광고라는 분야의 특성상 늘 급박한 광고주의 요청으로 "ASAP하게" 끝내야 하는 작업들이 많아 제작파트의 방은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틀 정도로 항상 후끈하다.



요즘 광고상황이 어려운데...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모바일 시장의 급성장으로 지상파 광고 시장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진 강력한 콘텐츠와 매체 네임 밸류의 힘을 살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도전하여 성장해야 한다. 특히 미디어사업본부에서는 그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2015년을 대비한 맞춤형 기획안들로 광고주, 대행사들에게 공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목표가 있다면?

미디어크리에이트에서 직접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직 그룹 내에서도 덜 알려져 있어서 이번 기회에 꼭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 그 후에는 '미디어크리에이트에선 이런 것도 가능하다', '좀 다르네?', '이름만 들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앞으로 미디어사업본부에서는 미디어 플래닝, 미디어 마케팅, BTL, 간접광고, 캠페인, 협찬, 광고 기획, 제작에 이르는 통합 미디어 솔루션으로 시장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개발 및 제안하려고 한다. 관행적 프레임의 파괴를 통해 고객 마케팅과 연계된 신규 부가사업을 개발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발굴하여 광고를 넘어서는 광고 집단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 해외취재기

네덜란드 번영의 바탕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SBS A&T 영상취재팀 정상보 기자와 함께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왔다.

풍차와 튜립, 히딩크 축구 감독, 그리고 플란다스의 개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는 남한 땅 절반도 안 되는 면적에 인구 1,700만 명의 작은 나라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7천 달러, 고용률 75.1%, 무역 규모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5위의 무역 대국(2012년)이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해수면보다 낮거나 해발 1미터의 저지대다 보니 수십 차례 홍수와 해일 등의 재난을 겪었다. 따라서 이 나라 사람들은 수백 년 간 범람하는 바닷물에 맞서 바다를 메우는 간척사업을 해왔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세상은 신이 만들었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네덜란드는 이런 역경과 재난들 속에서도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형평성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네덜란드에서 만난 한 하원의원은 8년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사당 지하의 자전거 보관소에 갔을 때 눈에 띄는 것은 길게 늘어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자전거들이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동차 관련 지원이 없다. 따라서 의원 대부분이 일반시민과 같이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 혹시 자동차를 이용해도 운전은 직접 한다. 의원 사무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사무실의 절반도 채 안 되고 그나마 보좌관과 책상을 마주하고 같이 근무한다.

검소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생활화된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부정 부패 사건은 상상조차 못한다. 네덜란드 사회의 최대 부패 스캔들은 지난 2002년 페퍼 당시 내무장관이 로테르담 시장으로 재임하던 16년 동안 판공비 400여만 원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공공과 정치에 대한 부패인식지수는 177개국 중 8위로 말 그대로 투명한 사회다. 이처럼 국가가 깨끗하다 보니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 암스테르담 벼룩시장에서 만난 상인이나 시민들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청렴하며 믿을 만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정부 신뢰 수준은 13위로 미국(20위)이나 독일(22위)보다 높다.(참고로, 한국은 46위이다) 이처럼 높은 정부 신뢰는 정부 정책지지로 이어져 네덜란드에서 10년 주기로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협약을 맺고 있다. 정부가 사회집단의 요구에 대한 조정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사회 특징의 하나는 시민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한 노인 봉사 단체에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젊은이 12,000여 명이 자원 봉사자로 가입해 양로원 방문 등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 생애에 걸쳐 사회, 문화, 정치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체에 가입한다. 즉 노동조합, 경영자 단체, 자원봉사 단체, 스포츠클럽, 사교 모임, 여성 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기부와 봉사, 준법정신, 관용과 배려 등을 실천해 높은 신뢰사회를 형성한다. 이런 참여의 바탕에는 사회의 투명성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가 깨끗할수록 남을 도우려는 이타주의 성향과



사회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는 네덜란드의 공공성을 높였고 이는 네덜란드가 그동안 겪은 각종 재난과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 앞서 말했듯이 네덜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바다보다 낮아 옛날부터 홍수와 해일로 인한 피해가 컸다. 때문에 네덜란드 역사는 물에 맞서온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하여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수영을 가르칠 정도로 네덜란드인들은 홍수 피해에 민감하다.

특히 1953년의 대홍수 때는 1,835명이 희생되고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해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를 겪은 후 네덜란드 정부가 세운 계획이 60여 년 동안 진행된 델타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라인강과 뮤즈강 하류의 로테르담과 제이란드 등 델타 지역에 300여 개의 구조물과 16,429km의 제방이 건설됐다. 이중 10개의 댐에는 수십 개의 갑문을 설치해 해일로 인한 범람을 막고 강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너진 방조제 보수를 위해 수만 명의 시민이 자원봉사로 등록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높은 시민 역량을 발휘 했다. 이제 델타 프로젝트는 해일 등의 자연재해를 넘어 기후 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대홍수 등 사회적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민참여, 사회적 자본 등 공공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는 경제적 위기 극복의 밑바탕이 됐다. 1980년대 초 당시 네덜란드는 물가와 임금 상승, 과도한 복지 지출 등으로 이른바 ‘네덜란드 병’이라는 경제 위기를 겪게 됐다. 하지만 1982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분배를 통한 고용 창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사항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었다. 이어 정부가 재정과 세제로 이 협약을 지원한 결과, 이후 네덜란드는 재정안정·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척박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왔다. 수차례의 위기 속에서도 투명한 정부와 사회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 공공성과 시민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결국 이번 취재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강한 공공성과 시민성이 사회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도본부 미래부 이창재 부장

2014년도 제1차 극본공모 당선작 6편 선정 시상



SBS문화재단은 2014년도 제1차 극본공모의 당선작으로 '이혼 변호사는 연애 중' 등 6편을 선정하고, 9월 22일(월) 목동 SBS방송센터 대회의실에서 SBS문화재단 윤세

영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SBS문화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이번 극본 공모에는 미니시리즈와 연속극을 합쳐 총 598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1, 2, 3차 예심과 본심을 통과한 6편의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 작가에게는 상패와 상금 5천만 원이, 우수상 수상 작가에게는 상패와 상금 2천만 원,佳作에는 상패와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당선작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 김아정 '이혼변호사는 연애 중' (미니시리즈)
- 우수상 : 이준호 '사랑에 빠질 수 없는 백 가지 이유' (연속극)
- 가작 : 김현정 '취업의 조건', 김혜정 '적과의 스캔들', 최지연 '38연인'(이상 미니시리즈), 김효정 '당신의 향기'(연속극)

SBS문화재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주말 9시 미니시리즈와 단막

극을 대상으로 2차 극본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당선작에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올해의 작가상’에 노순택 선정

SBS문화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로 사진작가 노순택이 선정됐다.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할 역량 있는 작가를 후원하고자 마련된 상으로, 심사위원단은 노순택이 “사회적·정치적 이슈를 다루면서 카메라의 본질과 사진작가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며, 성취도가 높고 현장의 격렬함에도 우리의 인식을 뒤흔드는 유머감각이 뛰어난 점이 인상 깊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사진작가로는 처음으로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올라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노순택은 8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는 ‘올해의 작가상 2014’전에서 평택 대추리, 제주 해군기지 등 한국 현대사 현장을 담아 온 그동안의 작품 수백 점과 신작 ‘무능한 풍경의 젊은 뱀’을 선보이고 있다.

사우 여러분의 사보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행 후기나 독후감, 전시나 공연 관람후기, 그밖에 사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떠오른 단상들을 사보 담당자(PR팀 전은진 차장)에게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할어스시 뷔페 무스쿠스 2인 식사권, 오리지널 뉴욕 디톡주스 한 상자, 수예당 화과자, 가평 뷔띠 프랑스 입장권 4매, 천지양 젤리진 한 상자 중 한 개의 상품)을 드립니다.



법적 이슈, 이럴 땐 어떻게? ⑨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2)

Q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아직 나온 바 없다. 이에 따라 현재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 부정하는 판결 등이 혼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의 제작(드라마/예능/다큐) 과정에서 출연 연예인과의 출연계약서를 살펴보면, 해당 연예인에게 상당히 넓은 범위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에 대한 이용 권한을 논하고 있어 안타까운 적이 많다. 계약을 통한 권리의 이전, 양도를 논하기 전에 과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최근 몇 가지 판결을 통해 법원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A 1. 네이트 특정 키워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이 사건은 네이트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네이트로부터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 결과 화면의 상단에 게시, 연결되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에 원고들의 성명 예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연예인들(김남길, 이소연, 소녀시대, 배용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해당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의 동의 없이 성명이 이용됨으로써 개인의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개인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선수인 경우 인격적 법익에 관한 일반 이론이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 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 선전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원고 연예인들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연예인들은 앞서 네이버, 다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했다)

2. 제시카, 수애 교정 사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가합105722 판결)

이 사건은 강남의 J지과에서 자신들의 홍보 블로그에 병원의 설측 교정 시술을 소개하면서 제시카, 수애의 치아 교정 전후 사진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제시카, 수애가 J지과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였다. 다만 법원은 제시카, 수애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각 500만원을 인정하였다.

3. 공효진 헤어스타일 사진 사건

한 미용실의 홍보 블로그에 ‘공효진 헤어스타일’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공효진의 사진을 첨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효진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초상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게시물이 연예인 공 씨의 평가, 명성, 인상을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해 직접 수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도 앞 판결들과 동일하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공효진 측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기획실 정책팀 박진선 변호사

**사우 기고
관람 후기**

뮤지컬 <레베카>

기간 : 9월 6일(토) ~ 11월 9일(일)
장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노래 잘하는 배우들과 귀에 남는 뮤지컬 넘버”

“아 지켜워,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부턴가 뮤지컬을 보면서 이런 혼잣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20여 년 전 뮤지컬 <캣츠>의 유쾌발랄한 무대를 보고난 후 뮤지컬 마니아가 되기로 굳게 마음먹었던 나의 입에서 말이다.

뮤지컬 마니아가 되기로 한 결심 이후로 많은 뮤지컬을 찾아다녔다. 때마침 국내에 불기 시작한 뮤지컬 열풍으로 수많은 대형 뮤지컬 신작들이 들어왔고,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맨 오브 라만차> 등 주옥같은 명작들을 만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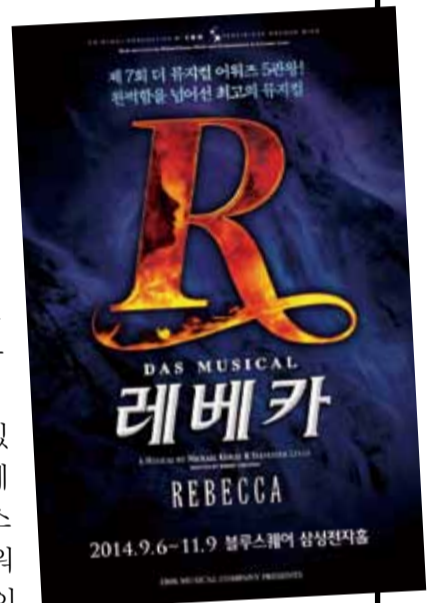
그런데 문제는 뮤지컬에 명작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새로이 제작되는 무수한 뮤지컬 중에 만족스런 뮤지컬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 지더라는 것이다. 영화보다 제작이

상대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뭔가 시원한 감동이 오는 뮤지컬은 드물었다. 적지 않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가 불만과 아쉬움 속에 커튼콜을 뒤로하고 나오는 횡수가 늘면서 뮤지컬에 대한 애정이 식어갈 무렵 만난 뮤지컬이 바로 <레베카>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덜 알려진 뮤지컬 <레베카>는 국내 초연이 작년이었고 2006년 비엔나에서 무대가 올려진 비교적 젊은 뮤지컬이다. 간결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대도 고급스럽고 히치코크의 동명영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도 긴장감이 충분하지만 한마디로 이 뮤지컬의 매력을 말한다면 타이틀곡이 압권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다른 요소들이 좋아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흥얼거려지는 뮤지컬넘버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명작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출연진도 노래 좀 한다하는 A급 배우들이 포진해 있어서(엄기준, 오만석, 민영기, 옥주현, 신영숙, 리사) 그들을 만나보는 즐거움도 쏠쏠하다. 특히 ‘나와 집사 댄버스 부인이 함께 부르는 베란다 신의 듀엣곡 ‘레베카’는 말 그대로 압권이다. 뮤지컬에 있어 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준 매력적인 뮤지컬 <레베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가보고 싶은 뮤지컬이라 사우 여러분에게도 감히 필감(?)을 권하고 싶다. 만약 돌아가는 길에 만족감을 갖게 된다면 그건 지금까지 다소간의 실망 속에서도 명작을 기다리며 뮤지컬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은 여러분에 대한 보상일 터이다.

제작본부 3CP소속 박재용 차장



| 경조사 소식 |

- ❖ 축하합니다 드라마본부 드라마4EP소속 고현국 사원 결혼(10월 4일)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김소원 차장 결혼(10월 9일)
- ❖ 애도합니다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안성식 사원 부친상(9월 29일)